

8000여 홍콩팬들 야광봉 흔들며 환호

“SM타운 라이브” 첫 홍콩콘서트

샤이니·NCT 등 출연 열광의 도가니
홍콩관광청 주최…행정장관 참석도

“한여름 밤의 선물!”
섬씨 32도가 넘는 홍콩의 열대야보다 케 이팝의 열기가 더 뜨거웠다. 5일 오후 9시(한국시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합 동 콘서트 ‘SM타운 스페셜 스테이지 인 홍콩’이 열린 홍콩 폴리세움은 8000여 관객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팬들은 30도가 넘는 한낮부터 공연장 주위를 둘러싸고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주변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열린 공연은 7월8일 서울을 시작으로 27·28일 일본 도쿄돔 등 전 세계에서 열리는 SM엔터테인먼트의 월드투어 ‘SM타운 라이브’의 홍콩 공연. 다만 이번엔 홍콩관광청이 주최하는 여름 축제 가운데 하나인 EMF(Esports & Music Festival)의 일환으로 꾸며지다 보니 기존 공연에서 열리는 SM엔터테인먼트의 월드투어 ‘SM타운 라이브’의 홍콩 공연. 다만 이번엔 홍콩관광청이 주최하는 여름 축제 가운데 하나인 EMF(Esports & Music Festival)의 일환으로 꾸며지다 보니 기존 공연에서

하지만 ‘SM타운’ 공연이 홍콩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현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 입장권은 예매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다. 공연장 역시 그동안 한류 관련 콘서트가 열렸던 장소가 아니라, 홍콩 가수들이 주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폴리세움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공연의 크기와 시간은 단축됐지만, 무대는 기대 이상이었다. 슈퍼주니어-D&E(동해



엑소와 레드벨벳, NCT, 샤이니(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SM타운’의 첫 홍콩콘서트에 참여해 열린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은혜), 예성, 샤이니, 에프엑스 루나,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출연해 2시간30분 동안 다채로운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각 그룹마다 유닛, 그룹 멤버 간 클레버레이션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소속가수 가운데 가장 막내인 NCT 드림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은 각 그룹의 메인보컬을 담당하며 솔로로도 활동하는 대민, 종현(이상 샤이니), 예성(슈퍼주니어) 등이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무섭게 세력을 키워나가는 NCT, 레드벨벳 등 ‘젊은

피’들이 초반부터 ‘달려’나갔다. 한번 달아오른 열기는 엑소의 무대가 시작되면서 최고 정점에 올랐다.

엑소는 3인조 유닛 엑소-CBX, 시우민 등이 개별 무대를 펼쳤고, 드라마 ‘도깨비’의 주제곡을 부른 찬열은 레드벨벳 웬디와 함께 삼입곡 ‘스테이 위드 미’를 불러 색다름을 안겼다.

현석, 초록색, 살구색, 연두색 등 각 그룹을 상징하는 형형색색 야광봉과 함성이 공연장에 가득 찼다. 저마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그룹이 무대에 오르면 야광봉 물결이 쳤

다. 중국의 한류금지령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한류 열기가 뜨거운 홍콩에서 무대가 열린 만큼 8000여 팬들이 32도를 모두 한국어로 따라 부른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 가운데 그룹을 대표해 혼자 무대에 오른 에프엑스의 루나는 “에프엑스를 많이 기다리는 것을 잘 안다. 열심히 준비해서 멤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현지 정치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콩 | 이정자 annjoy@donga.com

관찰예능 강자 SBS, 주말 평정 노린다

‘싱글와이프’ 등 평일 관찰예능 인기
‘파티피플’ 후속작 계획…10월 심야방영

SBS가 관찰예능프로그램을 또 제작한다.

6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SBS는 스타가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예능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현재 방송 중인 12부작 ‘박진영의 파티피플’ 후속으로 10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계획대로 방송이 시작되면, 가을부터 SBS는 주중과 주말까지 일주일을 관찰예능프로그램으로 장악할 기세다. 이미 화요일과 금요일 각각 ‘불타는 청춘’과 ‘백년손님’으로 밤 11시대를 장악한 SBS는 최근 월요일과 수요일에도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싱글와이프’를 각각 내세워 기세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기획 중인 관찰예능프로그램은 토요일 밤 편성 예정이어서 현재 일요일 밤의 최강자로 꼽히는 ‘미운 우리 새끼’와 함께 주말 밤 시청자 공략에 나서게 된다.

새 예능프로그램은 스타들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습을 시청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하는 연출 방식은 유지하지만, 기존 관찰예능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구성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선 현재 방송 중인 관찰예능프로그램보다 출연자 연령을 낮추고, 부부나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혼자 사는 스타들의 일상 속에서 이들이 평소 관심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SBS ‘미운우리새끼’

즐기는 모습을 중심으로 한다. 제작진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긴다는 계획이다. 스타 입장에서선 연기나 노래 외에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을 공개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

방송 관계자는 “걸그룹 멤버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출연할 예정이며, 지난주부터 미팅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파일럿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규프로그램 편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 중이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백슬미의 레알 대사발

드라마는 늘 명대사를 남긴다. 하지만 모두 챙겨 볼 여유가 없다. 방송사의 모든 드라마를 켜고 있어야 하는 직업. 한 주 동안 시청자를 웃고, 울린 그리고 또 가슴을 찡신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번 뽀아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썬보기를 권하며,



물론 성적에 따라 학생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하 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똑같은 조건

에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평등한 기회’의 자격을 빼앗을 순 없

故 최진실 가족들 향한 걱정어린 시선

딸 준희양, 외할머니 갈등 주장 SNS파문
KBS ‘속보이는 TV’ 출연 예정속 팬들 걱정

고 최진실의 딸과 고인의 모친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팬과 연예계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진실의 1남1녀 중 둘째인 최준희(14)양이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자신의 SNS를 통해 꺼냈다. 최 양이 글을 쓸 무렵인 6일 새벽 이들의 집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양과 외할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학대 주장이 제기된 만큼 당사자들을 상대로 추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 양은 2008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최진실이 남편인 고 조성민과 사이에서 2003년 낳은 딸이다. 5살 때 어머니를 잃은 최 양의 양육은 외할머니가 주로 맡아왔다. 이들 가족은 간간히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2015년에는 MBC ‘다큐 사랑’에 함께 출연했고, 지난해에는 홍진경의 주선으로 최 양 혼자 KBS 2TV V 예능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가족과 가까운 연예계 관계자들이 따르면 최 양은 외할머니와 상당 기간 갈등을 겪었다. 한참 예뻐한 청소년 시기에 촉발된

순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 양은 글에서 “외할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며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옷걸이로 때리고 손을 물어 아직 흉터가 남았다”며 “여행 가서는 엄마가 ‘널 잘못 낳았다’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 한 관계자는 7일 “최준희 양은 가족과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이모할머니가 주로 맡아 키웠다”며 “초등학교 재학 중 잠시 미국 유학을 시도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고 돌아왔고, 지방에 있는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서울로 다시 옮겨왔다”고 밝혔다.

최 양은 그동안 연예계 활동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이 아닌 혼자 방송 출연을 시도했지만 손녀의 연예인 데뷔를 극도로 꺼린 외할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갈등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도 전해진다.

생전 최진실과 가까웠던 관계자들은 최 양이 쓴 글을 토대로 혹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아닌지 걱정 어린 시선을 꺼내고 있다. 글에는 죽음이나 유서를 직접 언급한 부분도 있어 우려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양과 외할머니는 KBS 2TV ‘속보이는 TV 인사이트’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 양이 SNS에 글을 쓰기 전 이미 제작진과 만나 모든 활영을 마쳤다. 제작진은 이날 중순 방송을 준비하며 현재 편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리 떠나라고 부추기고 싶을 정도다. 그의 말대로 “졸업해도 좋은 직장은 스카이(서울 대·고려대·연세대)가 다 먹”고, “죽어라 일해봤자 점점 가난해질 뿐이야. ‘헬조선’의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종종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나도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아시아 유튜브’ 웹티비아시아, 한국 진출
‘아시아의 유튜브’를 표방하는 웹티비아시아가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 시장에 진출했다. 웹티비아시아는 4일 첫 방송된 KBS 2TV 새 금토드라마 ‘최강 배달꾼’을 공동 제작하고 있다. 웹티비아시아는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작품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레드 청 총괄 대표는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을 가진 킬러 콘텐츠”라며 “다양한 한국 드라마에 참여하고, 아시아 12개국을 잇는 유통망을 통해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웹티비아시아는 이미 국내 유력 드라마 제작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완성도를 위해 사전제작 형태로 만든 후 아시아 시장에서 동시 방송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약 300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이다.

‘브랜뉴뮤직’ 라이머, 방송인 안현모와 결혼



라이머와 안현모(오른쪽)

합참레이블 브랜뉴뮤직 수장 라이머(김세환·40)와 방송인 안현모(34)가 9월30일 결혼한다. 라이머와 안현모는 4일 SNS에 나란히 결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올 봄부터 교제했고, 최근 양가 상견례를 통해 결혼일자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래퍼 출신 라이머는 산이, 버벌진트 뱀기 MC그리 키디비 등이 속한 브랜뉴뮤직을 이끌고 있다. 안현모는 SBS CNBC 외신 기자 겸 앵커로 활약하다 SBS 보도국 기자로 이직했으며, 지난해 12월 퇴사해 프리랜서 통역가 및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다.

‘택시운전사’ 개봉 5일만에 400만 돌파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 제작 더 랩프)가 개봉 5일 차인 6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의 투자·배급을 맡은 쇼박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누적 관객 수 400만2663명을 기록했다. 경쟁작인 ‘군함도’의 400만 속도와 타이 기록이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가 통금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사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다.

소녀시대, 데뷔 10주년 팬미팅서 신곡 공개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기념 팬미팅 ‘걸스 제너레이션 텐스 에너버서리-홀리데이 투 리멤버’를 개최하며 데뷔 10주년을 자축했다. 이날 무대에서 소녀시대대는 ‘홀리데이’와 ‘올 나이트’, ‘원 라스트 타임’ 등 6집 신곡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부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등 기존 히트곡도 들려줬다. 아울러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멤버들이 뽑은 베스트곡 등을 소개하고, 관객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7월 30일~8월 5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택시운전사	3,268,198	08/02
2	군함도	5,842,682	07/26
3	슈퍼배드3	2,428,906	07/26
4	당케르크	2,543,779	07/20
5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	256,453	08/02
6	스파이더맨: 홈 커밍	7,233,757	07/05
7	극장판 쥘리앙의 못말려	306,538	07/20
8	내 사랑	247,822	07/12
9	플립	347,752	07/12
10	47미터	589,220	07/19

편집 | 좌혜경·김정호 기자